

제 목	시의성을 담아 전하는 완성도 높은 거리예술		
사 진	있음(7매)	송 고 일	2015.04.09(목)
문 의	축제사무국		
첨 부	사진 7매		

시의성을 담아 전하는 완성도 높은 거리예술

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 공식참가작 프로그램.

‘액션!(City in Action)’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될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총 10개국 61작 내외의 작품들을 선보인다. 이 중 축제를 대표하는 <공식참가작>은 개막작인 프랑스 에어로스 컬처의 <비상>과 창작그룹 노니의 <안.녕.安.寧>을 포함하여 국내외 총 12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다.

높은 완성도와 차별성을 지닌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구성된 <공식참가작>은 크게 3가지 특징을 지닌다. 첫째 타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신체 언어의 특성을 극대화하였으며, 둘째 현대인의 삶을 예술로 재해석해 작품에 반영한다. 마지막 특징은 해외의 대규모 거리예술작품을 안산의 예술적 소재들을 반영하여 새롭게 선보인다는 점이다.

타 장르와의 융합을 통한 완성도 높은 신체 언어의 전달

해외작의 경우는 몸짓 언어가 지닌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다수 소개된다. 특히 프랑스 오스모시스의 <철의 대성당>과 포르투갈 오 울티모 모멘토의 <남겨진 사람들>은 다른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신체언어의 상상력을 극대화하여 나타낸다. <철의 대성당>은 산업현장에서 오가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언어를 몸짓과 신체에 녹여 표현한 무용작품이다. 실제 공장 노동의 경험이 있는 이들이 출연하여 리얼리티가 극대화된 작품으로 공업도시라는 안산의 특성과도 잘 어울리는 작품이다. <남겨진 사람들>은 기억을 잃고 끝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갇혀버린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아크로바틱 공연이다. 두 명의 아티스트가 중국식 장대를 무대삼아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선보인다.

예술로 재해석 된 현대인의 삶

국내작의 경우는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 가능한 시의성 짙은 소재를 담은 작품들이 다수 소개된다. 비주얼씨어터 꽃의 <담벼락을 짚고 쓰러지다!>는 (예)술과 세월에 휘청이는 취객과 대답 없는 담벼락 사이의 실랑이를 표현한 페인팅 퍼포먼스이다. 작품에 등장하는 거대한 담벼락과 페인팅, 물 그리고 빛과 제3세계 악기소리들이 관객들을 원초적 내면의 세계로 이끌어간다. 예술창작공장 콤마앤드의 <당나귀 그림자 재판>은 ‘당나귀 그림자’를 가지고 다투는

어리석은 두 사람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음악극이다. 본질에서 벗어난 소유권 다툼은 현대 사회의 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지고 조작되는 군중심리와 분노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던진다.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<조화로운 삶>은 라이브로 연주되는 클래식 음악과 무용수들의 개성 있는 움직임의 조화를 통해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 쉼과 조화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무용 작품이다.

안산의 예술적 소재들을 녹여낸 대형 거리예술작품 재창작.

호주 메가폰 프로젝트의 <메가폰 프로젝트>와 호주 올 더 퀸즈 맨의 <편린 인 안산>은 기존 대형 거리예술작품에 안산에 존재하는 예술적 소재들을 녹여 재창작해 선보인다. <편린 인 안산>은 마라톤에서 영감을 얻은, 스포츠와 예술이 결합된 퍼포먼스이다. 안산의 다양한 스포츠, 예술 커뮤니티들 참여하며, 일반 시민들도 '춤추는 응원군'으로 작품에 참여 가능하다.

<편린 인 안산>의 '춤추는 응원군'은 총 4번의 플래시몹에 참여하여 아티스트의 마라톤 완주를 응원하게 된다. 현재 온라인을 통해 '춤추는 응원군'을 모집 중이며,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 세부 내용 및 참가 신청 방법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공식 홈페이지 (www.ansanfest.com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※ 사진 설명

1. ASAF2015_철의대성당
2. ASAF2015_남겨진사람들
3. ASAF2015_담벼락을짚고쓰러지다
4. ASAF2015_당나귀그림자재판
5. ASAF2015_조화로운삶
6. ASAF2015_메가폰프로젝트
7. ASAF2014_편린인안산